영아 쌍둥이 육아 경험에서 어머니가 인식하는 어려움에 대한 질적연구*

변경애** 김은주***

A Qualitative Study on Self-perceived Child-rearing Difficulties among
Mothers with Infant Twins

Byun, Kyung Ae Kim, Eun Ju

본 연구는 쌍둥이 출산이 증가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쌍둥이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육아고충과 어려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P시에 거주하며 영아 쌍둥이를 양육하는 어머니 6명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두 차례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영아 쌍둥이 육아경험에서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가 겪는 어려움으로는 욕심도 사랑도 나누어야 하는 아이들, 환경의 제약을 받는 아이들, 태생 자체가 약한 아이들로 나타났다. 둘째, 영아 쌍둥이 육아경험에서 어머니가 인식하는 본인의 어려움은 아플 시간도 없는 엄마, 몸도 마음도 쓸쓸한 엄마, 경제적 부담을 힘들어 하는 엄마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쌍둥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정서적, 경제적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쌍둥이 육아지원의 활성화를 돕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 쌍둥이, 영아, 육아

* 본 논문은 2013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을 확장한 것임.

** 제 1저자: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eunjukim@pusan.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쌍둥이 출산율이 급증하고 있다. 해외, 국내를 막론하고 유명 연예인들의 쌍둥이 출산은 붐이 되고 있으며 쌍둥이 낳는 비법 또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하게 전파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출생아 수는 줄고 있지만 쌍둥이(다태아 포함) 신생아의 수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으며, 전체 출생아 중 쌍둥이 구성비는 2000년 1.69%에서 2010년 2.74%로 10년 동안 약 1% 가량 크게 늘었다. 2011년 다태아 수는 총 1만 3,852명으로 전년에 비해 1,011명 증가하고, 총 출생아수 대비 다태아 구성비 역시 2.94%로 전년보다 0.2% 증가했다(통계청, 2012). 쌍둥이 이상 다태아의 증가는 산모의 고령화에 따라 난임 치료(시험관 시술, 배란촉진 같은 의학적 시술의 도움을 받아 임신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이유가 한 몫을 하고 있다(머니투데이, 2012). 이러한 쌍둥이 출생율 증가로 새롭게 변하고 있는 출산문화는 이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 변화의 흐름이라 볼 수 있다.

쌍둥이는 동시에 두 아이를 갖게 된다는 기쁨도 있지만, 같은 연령의 어린 아기를 낳고 돌본다는 육아의 부담은 배 이상이다. 흔히 갓 태어난 쌍둥이를 돌보려면 어른 네 명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쌍둥이를 키우는 일이 아이 한명을 키우는 것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주변에 조력자를 두지 못한 어머니의 경우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에서 오는 육아스트레스는 매우 크다. 최근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성인 여성 10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육아스트레스로 인한 주부 우울증은 여성 우울증의 큰 원인중의 하나로 알려져있다. 2001년(6.2%) 대비 2011년(9.2%) 우울증 수치는 약 1.5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으며(보건복지부, 2011), 주부 우울증의 심각성이 급격하게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은영(2010)의 연구에 따르면 외동아를 키우는 어머니 보다 쌍둥이 자녀를 둔 어머니가 더 큰 육아 스트레스를 받으며, 정서적인 지원 부족이나 육아에서 오는 고립감이 크다고 하였다. 쌍둥이의 경우 발달적 욕구가 비슷한 두 아이가 욕구 만족 해결책인 엄마를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육아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육아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출생기부터 영아기 아기는 어머니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고 발달에 있어 매우 민감한 시기임은 분명하다.

부모는 아기의 태내환경에도 근본적인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력은 아이가 태어난 뒤 부모가 조성해주는 물리적 환경과 정서적 교감, 신체적 접촉 등 자녀와 나누는 상호작용에 따라 더욱 커진다. 아기가 태어나서 2년간은 뇌가 성숙해감에 따라 세상을 인지하고, 세상과 관계를 맺는 능력이 더욱 발달하게 되며, 성장발달의 기틀(Hopson & Diamond, 2006)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머니로서 역할을 어떻게 준비하고 수용하는가가 이후 아기와의 만남에서 중요하게 작용(최윤선, 2005)한다. 때문에 쌍둥이 영아를 둔 어머니들은 정서적인 교감과 같은 문제에 봉착하여, 스스로 자책하며 좋은엄마 콤플렉스를 호소한다.

또한 애착을 연구한 Ainsworth에 의하면, 엄마와 영아의 관계에서 애착육아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애착이 어느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며, 아기나 양육자의 특성 어느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유효순, 2012 재인용)라고 밝혔다. 신생아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와의 접촉, 상호작용, 눈맞춤 등이 긍정적인 효과를 시사했으며, 영아기 더 많은 스킨십과 정서적 교감을 나눈 경우 높은 자신감과 부모와의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애착의 안정성은 성장 후 친밀한 관계나 자아 이해, 심지어 정신병리(유효순, 2012) 극복,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자녀의 긍정적인 심리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엄마가 불행하다고 느끼면 아기도 불행하다고 느끼며(Sears & Sears, 2011), 육아에 지쳐 부모의 욕구와 아이의 욕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안정 애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이러한 애착육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두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근원적인 애착의 욕구를 자녀에게 만족시키지 못하는 쌍둥이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매우 크며,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는 육아의 좌절, 소통의 부재, 어머니들의 극심한 육아 우울증을 유발하여 자신의 자녀까지 학대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로 1980년대 신생아중 쌍둥이 출생아 비율은 1%인데 반해, 학대받은 아동 중 쌍둥이 비율이 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부모가 쌍둥이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Groothuis, Altemier, Robarge, O'connor, Sandler, Vietze, & Lustig, 1982; Nelson & Martin, 1985; Tanimura, Miatsui & Kobayashi, 1990; 고은영, 2010 재인용).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두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어머니의 안녕과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정서발달에도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쌍둥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그에 반해 국내의 쌍둥이 관련 연구와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 미국의 경우 쌍둥이 부모를 돕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트윈 서비스(Twin Services. Inc)'가 있음(Malmstrom & Poland, 2010)을 고려해 볼 때 국내에

도 유사한 쌍둥이 관련 지원센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쌍둥이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의, 과학계에서 연구되었으며, 발달심리학 분야에서 유전과 환경에 관련 연구(조윤정, 2007; 허윤미, 2005)가 보고되고 있다. 현재까지 쌍둥이 양육과 관련한 두 논문이 연구되었으나(고은영, 2010; 윤수인, 2007) 모두 설문지 표집에 의한 양적연구로 주 양육자인 어머니 스트레스에 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쌍둥이 출산이 증가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쌍둥이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육아고충과 어려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영아 쌍둥이를 둔 어머니의 육아 경험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쌍둥이 육아에 있어 “꿈의 세돌”이란 말이 있다(문화라, 최호경, 2012). 흔히 쌍둥이 키우기는 세 돌을 기점으로 기본생활자체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엄마들 사이에 “꿈의 세돌”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세돌 이후에는 쌍둥이 육아가 외동아보다 수월하다는 보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쌍둥이 육아의 어려움이 가장 고조에 달하는 영아기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쌍둥이 출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쌍둥이 육아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고찰 및 긍정적인 관심과 돌봄의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연구결과는 쌍둥이 영아를 둔 어머니들의 육아고충을 이해하며 향후 쌍둥이 육아 지원의 활성화를 돕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2. 연구문제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다룬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아 쌍둥이 육아경험에서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가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영아 쌍둥이 육아경험에서 어머니가 인식하는 본인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배경

본 연구자 중 1인은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교사로 근무하다 2010년 쌍둥이 출산과 함께 교사직을 쉬게 되었다. 쌍둥이 출산과 양육은 초보 엄마에게 무척이나 큰

어려움이었으며, 새로움과 낯선 상황이었다. 쌍둥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육아서를 통해 육아의 도움을 청하면서, 다른 쌍둥이 어머니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연구자의 이러한 개인적 경험은, 쌍둥이 육아 관련 연구가 부족함을 인식하게 하였고 영아 쌍둥이 육아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주제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2. 연구 참여자

연구자는 쌍둥이 육아 커뮤니티를 통해 본 연구주제를 알리고, 연구에 동의하고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P시에 거주하며 36개월 미만의 영아 쌍둥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참여자는 선택준거에 따른 임의 표집(Purposeful selection based on criteria, Goetz & LeCompte, 1982)에 의거해 쌍둥이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를 선정하였다. 쌍둥이 영아를 다양한 개월 수와 남녀 성비, 일란성과 이란성의 비율 등을 맞추어 선정하고 싶었으나, 영아 쌍둥이 어머니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을뿐더러 연구에 끝까지 참여한 어머니가 6명이어서 최종 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배경

연구 참여자 (출산순위)	연령	학력	자녀 성별	임신 방법	자녀 개월수	구분	육아 도움	직업 (전직업)	남편 직업
참여자 1 (둘째출산)	35세	대졸	남,남	자연	27	일란성	혼자양육	휴직중 (공무원)	병원 행정직
참여자 2 (초산)	36세	대졸	남,남	자연 (과배란제 복용)	34	이란성	어린이집	학교 행정직	건설업 (주말부 부)
참여자 3 (초산)	36세	대졸	남,남	인공수정	26	이란성	도우미	휴직중 (공기업)	회사원
참여자 4 (초산)	32세	대졸	남,남	인공수정	12	이란성	친정엄마	전업주부 (파트타임)	회사원
참여자 5 (초산)	31세	대졸	여,여	자연 (과배란제 복용)	4	이란성	혼자양육	전업주부 (학원강사)	회사원
참여자 6 (초산)	40세	대졸	남,남	시험관	20	이란성	어린이집	전업주부 (회사원)	자영업

* 참여자 연령과 자녀 개월 수는 연구를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2012년 12월)

3. 자료수집

본 연구 참여자들의 주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경험세계를 들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주요 자료수집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어머니들이 쌍둥이 육아에 대한 관점, 의식, 주관성 등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연구 참여자와의 대화를 통해 어머니들이 처한 상황을 짚어봄으로써 참여자들의 심층적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 되었다. 이들과의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인터뷰였는데 이는 자료수집을 위해 최소한의 면접 지침을 정해두고, 필요한 질문 내용과 순서에 대하여 최소한의 준거 틀만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상황적 맥락에 대한 융통성과 수용성의 여지가 있는 장점이 있다(이용숙, 2005).

사전 인터뷰는 본 인터뷰의 대상 중 2인으로 쌍둥이 육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 방식으로 2012년 12월부터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여 모호하거나 어려운 질문 순서를 함께 협의하여 수정하였고, 인터뷰가 좀 더 자연스럽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내용과 방법을 보완하였다.

본 인터뷰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개인당 두 차례씩 총 12차례에 진행이 이루어졌으며, 1회 시간은 약 80~120분 정도 소요되었다. 1차 인터뷰에서는 전반적인 결혼, 임신, 출산에 초점을 두어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내용을 정리하면서 구체적으로 보완이 필요하거나 미진한 내용을 기록해 2차 인터뷰에서 보완하며, 2차에서는 쌍둥이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어려움, 문제점, 희망사항을 주로 다루었다. 연구 참여자와의 만남은 외출이 용이하지 않은 어머니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로 참여자 가정에서 이루어졌으며 집근처 커피숍, 식당 등에서도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에게 인터뷰 내용은 사전 동의를 구하여 녹음한 후 그 내용을 전사하여 처리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면담, 반구조화된 질문지, 연구자의 메모, 녹음으로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자료 수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료 수집을 마친 이후에는 전사된 면담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류하고, 주제별로 부호화(coding)하여 범주화 하는 작업(Bogdan & Biklen, 1992)을 거쳤다. 이를 통해 ‘영아 쌍둥이 육아경험에서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가 겪는 어

려움’과 ‘영아 쌍둥이 육아경험에서 어머니가 인식하는 본인의 어려움’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유목화 하였다. 각 범주는 반복되어 나타나는 주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다시 몇 가지 하위 범주들로 구분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분석된 범주는 아래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연구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면담의 내용을 참여자에게 제공하고 다시 확인하는 연구 참여자 검증과정을 거쳤으며 자료 분석 및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교육경력 5년 이상의 유아교육 전공 박사수료생 2인과 질적 연구에 익숙한 유아교육과 교수 1인에 의한 연구 확인방법을 거쳤으며, 연구 참여자의 피드백을 통해 연구결과 및 해석에 대한 의견을 구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표 2> 최종적으로 선정된 분석범주

상위범주	하위범주
영아 쌍둥이 육아경험에서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가 겪는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심도 사랑도 나누어야 하는 아이들 • 환경의 제약을 받는 아이들 • 태생자체가 약한 아이들
영아 쌍둥이 육아경험에서 어머니가 인식하는 본인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플 시간도 없는 엄마 • 몸도 마음도 쓸쓸한 엄마 • 경제적 부담에 힘들어 하는 엄마

III. 연구결과

1. 영아 쌍둥이 육아경험에서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가 겪는 어려움

1) 욕심도 사랑도 나누어야 하는 아이들

아기는 태어나면서 강한 의존 욕구를 가진다.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자신에게 아낌없이 희생해 줄 것 같은 사람을 골라 그야말로 껌딱지처럼 딱붙어 의존하고 싶어한다(김광호, 조미진, 2012). 엄마는 태내의 아기를 출산하며, 지극히 본능적인 감성을 발휘하여 아기를 보호하고 감싸 주려한다. 그러나 쌍둥이는 이러한 의존 상대인 엄마를 혼자 독차지 할 수 없어 늘 경쟁에 시달리며 사랑을 나누어가진다. 본 연구 참여자들 또한 자녀입장에서 사랑이 둘로 나뉘는 아쉬움, 누군가가 항상 양보해야 한다는 경쟁, 그리고 돌봄을 받는 자녀의 ‘육아의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말을 하였다.

한꺼번에 배가 고프거나, 졸리면 서로 더 크게 울어요. 그래야 먼저 엄마가 별난애한테 달려가기 때문이죠... 사랑이 반으로 나뉘니 마음이 아파요...

(2012. 12. 27. 참여자 3 면담)

쌍둥이는 육아의 질이 낮아지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한 명만 있으면 언제든지 안아주고, 너무 울면 계속 계속 안아주고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중략) 말도 많이 해줘야하고, 이야기도 해줘야하고, 웅알이도 같이 해줘야하고, 마사지도 길게 길게 그런데... (중략) 어머니가 주말에 오셔서 웅알이 해주면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인데 내가 너무 방치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13. 7. 2. 참여자 5 면담)

엄마가 된다는 것은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하루아침에 '여자'에서 '엄마'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일이다. 모성이란 모든 엄마가 본능적으로 지녀야 할 조건이라고 생각(김광호, 조미진, 2012)하지만 무한한 사랑과 끊임없는 희생을 하나가 아니라 둘로 나누어야 하는 상황적 한계 속에서 자녀는 사랑을 독차지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임상 심리학자 프랭크 설로웨이(Frank Suloway)는 “형제 순서에 따라 각기 다른 성장 전략을 꾀하며, 둘째는 출생 때부터 존재한 필생의 라이벌인 형을 이기기 위해 실험적이고 모험적인 전략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쌍둥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서로를 의식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주 양육자인 어머니는 둘 사이의 외줄타기 전략을 통해 적절한 화음과 조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쌍둥이 설화의 기피담에 의하면 쌍둥이가 서로 공생하는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로 서열과 권력의 문제를 부각시키는데 이것은 경쟁에 의한 부정적인 시각(김자현, 2007)으로 묘사했음을 알 수 있다.

같이 네발 자전거(보조바퀴달린 자전거)로 바꿔줬는데 큰 애는 잘 타는데 둘째는 못타는 거예요. 자기는 옛날 자전거(세발 자전거) 꺼내 달라고... (중략) 동시에 비교 되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2012. 12. 27. 참여자 2 면담)

큰애가 소변을 쉬통(소변통)에 잘 누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었더니 작은애가 질투가 나서 자기도 하려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계속 해주었더니, 그날은 하루 종일 놀지도 않고 작은애가 쉬통만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땀에는 칭찬을 받고 싶었나 봐요. 마음이 짠-하고 안스러웠어요.

(2013. 1. 25. 참여자 3 면담)

또한 아이들은 서로를 의식하며 경쟁하는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각박증이 될 수 있는 ‘착한아이 콤플렉스’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는데 아래의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다.

큰애는 자꾸 포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 있어도 큰애가 양보를 하니까... 스스로 양보를 해요. 시누네 가니까.. 또봇이 있는데 우리 작은애가 워낙 좋아하니까 “만져봐” 하니까 안 만지는거야. 그날 그 집에서 자는데 작은애가 먼저 또봇을 안고 잤어요. 근데 한참 후에 큰애가 방으로 가서 그 또봇을 안고 나오는거야. 작은애 깨어있을땐 쳐다도 안봤는데...
(중략) 마음이 짠 하죠 (2013. 7. 24. 참여자 6 면담)

본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쌍둥이 자녀들의 충돌 상황에서 큰애가 작은 애에게 양보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첫째가 점점 성장함에 따라 만이 콤플렉스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우려는 자녀의 개월 수가 높아질수록 더욱 커져갔다. 참여자 3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아기 때 환경적인 영향이 크니까... 큰애는 만이 강박증이 생기지 않을까? 막내는 자꾸 어리광을 부리고..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너무 슬픈 거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쌍둥이들의 어려움은 어머니의 올바른 양육신념과 양육행동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2) 환경의 제약을 받는 아이들

쌍생아들은 약 7~9개월 동안 어머니의 자궁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유대감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것은 다른 인간들이 갖지 못하는 독특한 경험이다. 그 유대감은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생성되며, 서로의 존재를 아는 것처럼 서로에게 더 애착을 가지고 유대감을 강화한다(Malmstrom & Poland, 2010). 때문에 이들은 서로 잘 협력하고 이해하고 소통하지만 이것이 때로는 타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 거부당하거나 소외될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래의 인터뷰에서는 유아교육기관을 다니는 쌍둥이 자녀가 겪는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한 애가 장난치면 한 애는 더 크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종일반도 못했었거든요. 그 원장님은... 어린이집에서 거부했어요. 두시 반에 하원하는 차에 그냥 보내드린다고... “어머니 여섯시까지 도저히 못 봐드립니다.” 좀 서운했어요. 단지 그 이유가 애들이 별나다고... 자꾸 얘기하셔서.... (2013. 1. 18. 참여자 2 면담)

위에서 말한 쌍둥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뿐 아니라 복지 정책적인 차별과 불이익이 사

회전반에 깔려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특히 자녀 보험가입에 있어서도 까다로운 절차와 심사과정은 쌍둥이 부모에게 또 한 번의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쌍둥이는 미리 보험 안 들어줘서 저는 선택아만 들어주니까 안했어요. 그래서 낳자마자 보험들고 했는데 이걸 위해서(출생후 초음파검사) 보험을 들었다고 할까봐 보험을 못 탔어요. 실효될까봐.. (2013. 2. 4. 참여자 1 면담)

쌍둥이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상술이 심해요... 다하라고 병원에서.. 쌍둥이는 무조건 고위험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진비도 내야하고, 양수검사도 권유받았어요. 양수검사로 인해 오히려 유산될 수 있다는 데.. 애들이 뱃속에서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2013. 4. 22. 참여자 4 면담)

또한 쌍둥이의 성별이 남아일 경우, 어머니들은 별난 남자아이가 둘이라는 선입견 즉, 사회의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선뜻 두 아이를 모두 데리고 갈만한 장소가 많지 않아 여러 모임으로부터 소외될 때가 많다고 하였다.

“아이들 배우는 문화센터에 가고 싶어 문의를 했더니, 아이 하나당 부모가 함께 필요하다고 해서 거절당했어요. 참 기분이 씁쓸하더라고요...” (2013. 1. 25. 참여자 3 면담)

둘 지나서 아이들이 진짜 바깥에 많이 나가고 싶어했어요. 남편 출근하고 나혼자 나갈 수 없어서 거의 집에만 있었는데... 애들이 맨날싸우고 울고... (중략) 산책이랑 체험을 많이 시켜주라고 하잖아요... (2013. 1. 25. 참여자 3 면담)

생태유아교육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해야 한다는 이치를 깨달아 자연과 만나는 산책과 나들이를 권장한다(임재택, 2008). 그러나 쌍둥이들은 둘을 동시에 데리고 움직여야 한다는 상황으로 인해 유아기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분히 충족할 수 없는 제약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의 민간 후원단체인 ‘여러 쌍둥이 기르기’의 캐시 주니어 공동의장은 “부모 중 한명이 두 아이를 모두 데리고 있으면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다”며 “여러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 쌍둥이가 나타나면 다른 가족은 우선 기가 질리고 만다”고 말했다(동아일보, 1999).

3) 태생 자체가 약한 아이들

다태아들은 임신과 함께 건강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게 된다. 다태아들은 조산의 위험이 크고 태어난 후에도 저체중이 많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어머니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뱃속의 아기에게까지 정서적인 불안을 느끼게 하며, 건강상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쌍둥이는 특히 임신과정이 일반아보다 힘들게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 겪는 정서적인 어려움이 본 인터뷰를 통해 잘 나타나 있다.

23주만 넘기면 아기가 산 기록이 있어서 제발 23주만 넘기자고 했어요. 유산의 두려움이 컸어요. 초기에 병원에서 겁을 주시고 해서 무서웠어요. 애들도 무서웠겠죠.

(2013. 7. 2. 참여자 5 면담)

애들이 처음에 같은 태반을 공유하고, 정맥, 동맥이 연결되어서... 일란성이어서 공유하는 증후군이 있더라구요. (중략) 그때는 심각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일란성의 경우 잘못 하면 둘 다 죽을 수 있고 실제 죽은 애기도 많고...

(2013. 2. 4. 참여자 1 면담)

위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란성보다 일란성 쌍생아를 둔 어머니의 고민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쌍생아는 외동아보다 임신출산의 과정 뿐 아니라, 출생 후에도 잦은 감기, 폐 관련 질환 등으로 인해 심리적,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3일 정도 있었어요. 작게 태어났는데... 아이가 호흡이 빨라서 거기 있었어요. 둘 다 같이 들어갔어요.

(2012. 12. 27. 참여자 2 면담)

쌍둥이들은 폐가 성숙하지 않아서 폐렴이 자주 걸려요. 벌써 돌전에 두 번이나 입원했고, 둘이 같이 입원한 적도 있고 하나만 입원한 적도 있고.

(2012. 12. 12. 참여자 3 면담)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키 쏠들했어요. ‘정밀검사 요망’ 이렇게 나왔어요. 크게 걱정 안하는데.. 너무 부끄럽고 자꾸 신경이 쓰이죠

(2012. 12. 27. 참여자 2 면담)

감기 알면서 모세기관지염을 알았는데 좀 약한거 같아요. 병원을 오래 다니니까..

감기를 내 해요. 애들이 좀 커야 안 아플거 같아요.

(2013. 2. 4. 참여자 1 면담)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나거나 출생시 몸무게가 2.5kg 이하인 아

기를 ‘이른둥이’로 정의한다. 다태아의 경우 이른둥이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른둥이는 장기들이 미숙한 상태이고 면역체계도 덜 발달했기 때문에 각종 병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특히 만삭아에 비해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2배 이상 높기(한국일보, 2012) 때문에 영아 쌍둥이들 역시 가장 큰 어려움은 건강적인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쌍둥이 대부분이 37주를 기점으로 출산한 점과 출생당시 몸무게가 2kg 초반임을 볼 때 영아 자녀가 겪는 건강상의 어려움을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영아 쌍둥이 육아경험에서 어머니가 인식하는 본인의 어려움

1) 아플 시간도 없는 엄마

애착육아는 양육에서 아이와 부모간의 긍정적인 심리적·정서적 유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대안 육아법으로 Sears와 Sears(2011)가 30년간 연구해 온 육아법이다. 이는 아기가 울거나 보챌 때 신속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가능한 모유를 먹일 것, 항상 안고 다닐 것, 아기와 반드시 함께 잘 것, 아기 울음에 민감할 것이라는 육아 원칙을 말한다(김광호, 조미진, 2012). 그러나 쌍둥이 엄마들은 동시에 두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어려움 때문에 애착육아를 실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돌봄의 책임감 때문에 외동아의 어머니들보다 배 이상의 육체노동을 호소하였는데, 한 쌍둥이 어머니는 “내가 팔이 네 개 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루 수십 번씩 해요!” 라는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 겨울 둘이 같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찌나 서로 업어달라고 울어대는지, 할머니등에는 가려고 하질 않아서 제가 아기띠를 앞뒤로 묶어서 둘을 업었어요. 하나면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것도 둘이라 힘들고, 늘 애들에게 미안하죠.

(2013. 4. 22. 참여자 4 면담)

내가 쌍둥이를 임신하면서 친정엄마 근처로 이사를 했죠. 이 라인에 엄마, 밑에 수민이(여동생) 집이고, 다 같이 이사왔어요. 서로 편하죠.

(2013. 2. 4. 참여자 1 면담)

쌍둥이 키우니까 아플 시간이 없는거 같아요. 아기띠를 하고 다니니까 허리랑 척추가 너무 아파요. (중략) 남편은 직장에 다니니까, 주로 주말이나 저녁시간에 와서 봐주는데... 거의 제가 다 했죠. (중략) 쌍둥이 엄마들은 뚱뚱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살이 찌 수가 없어요.

(2013. 8. 12. 참여자 5 면담)

여기 흉나고 그래서 수술했어요. 대학병원 가서... 이와선종양... 육아로 무리하고 스트레스 받고 면역력 떨어져서... 디스크도 있어요. 산후풍도 있고. 지금 녹용 먹고 있어요.

(2013. 8. 19. 참여자 6 면담)

쌍둥이 어머니들은 동시에 두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어려움 때문에 육체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친정이나 시댁 근처로 이사를 오거나 어린이집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등의 다양한 육아방법을 모색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의 남편들이 대부분이 출퇴근시간이 엄격한 직장인이어서, 육아 참여는 하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하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전담으로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쌍둥이 어머니들은 더욱 육체적인 피로를 호소하고 있었다.

2) 몸도 마음도 쓸쓸한 엄마

권미경(2011)의 연구에 따르면 양육을 담당하는 어머니들은 외출이 어렵고 친구나 친지 같은 사회관계들로 소원해지며 자녀양육 상황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서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쌍둥이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두 아이를 동시에 돌보는 환경적 요인으로 사회적인 소통의 단절과 정서적 고립에서 오는 우울감이나 육아스트레스가 외동아보다 크기(고은영, 2010) 때문에 정서적인 도움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현대사회는 시부모나 친정부모도 멀리 떨어져 있으며, 가까이 살고 있어도 다들 자신의 생활과 직업이 있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무연사회(無緣社會)'의 특징을 띠기 때문에 쌍둥이 육아의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본 인터뷰를 통해 어머니들은 쌍둥이 육아에서 겪고 있는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힘든 몸의 피로보다 한 차원 높은 정신적, 정서적 어려움이었다. 아래의 내용은 임신기간에 겪은 어머니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담고 있다.

7개월부터 만삭처럼 몸이 진짜 무거웠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다들 애 세명씩 낳고 강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괜히 아픈척 어설프게 하면 괜히 티낸다고 하실까봐 일부러 티 안냈어요.

(2013. 2. 4. 참여자 1 면담)

쌍둥이 임신은 보통의 임신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쌍둥이를 둔 어머니들은 임신부터 남과 다른 상황에 더 어려워하며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아래의 내용은 출생 후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머니들의 정서적 고립과 사회적인 관계에서 오

는 갈등을 들어볼 수 있었다. 본 인터뷰에서는 어머니가 겪는 서운함,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한계점 등을 알 수 있었다.

쌍둥이엄마니까... 약속 같은거 많이 못하잖아요. 약속 같은거 해놓고 캔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명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애기엄마들 하고 모일려고 해도 잘 안되더라고요.
(2013. 8. 19. 참여자 6 면담)

쌍둥이엄마들 대부분 그래요. 친정엄마들이 싫어해. 우리 엄마도 제발 어린이집 빨리보내라고 해요. 하나면, 내가 하나 업고 자기는 그냥가도 되는데 내가 하나 업어도 자기도 하나 업어야 되는거라. 몸이 축나지.(중략) 키우는거 힘든거... 이해 못하지. 하다못해 여동생도..여동생도 “연년생보다 편하잖아!” ...
(2013. 4. 30. 참여자 4 면담)

쌍둥이니까 항상 눈치보고.. 자존심도 바닥인거야... 식당, 아이 도우미, 하다못해 신랑 눈치도 내가 보고.. 시키려면 신랑 비위 맞춰야하고. 그런게 힘든거 같애. 아이들보미도 짜르면 내가 혼자 못보고 (중략) 나의 그런 자존감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데 바닥을 치니까 그게 힘든거 같애. 쌍둥이는 어디를 가도 민폐지..
(2013. 7. 24. 참여자 6 면담)

어린 두 아이를 동시에 키우는 쌍둥이 어머니들은 도움이 절실하며, 이러한 가운데 정서적 지지를 지원해줄 지원군이 없음을 어려워했다. 외출이 용이하지 못하고, 인적 도움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도움을 받는 입장으로서의 말 못할 스트레스와 육아에서 오는 부부간의 갈등 또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누워서 그냥 보채면 달래야하는데 핸드폰 보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중략) 육아 때문에 대판 싸우고, 육아에 지쳐있어서 3일 동안 말 안하고..
(2013. 8. 12. 참여자 5 면담)

두돌 때 너무 힘들어서 한번 크게 싸웠죠. 한 일주일 말 안했어요. (중략) 작은 애가 놀래서 한동안 아빠한테 안 가더라고요 (중략) 남편은 맨날 늦게 오니까 저는 애들 뒤치다꺼리 하다보면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마음을 나눌 곳이 없지.
(2013. 8. 19. 참여자 6 면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부부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며, 자녀에게는 짜증을 많이 내고 이것이 유아의 공격적인 행동을 증가시킨다(장영애, 이영자, 2012)는 연구결과를 미루어 보

아, 쌍둥이 어머니의 정서적인 돌봄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쌍둥이 어머니들은 육아 정보로부터 뒤쳐져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너무 바쁜 육아로 인한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부재와 의사소통의 단절에서 오는 고립 때문이었음을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하나인 엄마들한테 뭐든 뒤쳐지는 거 같애. 정보도 늦고 사회성도 떨어져요. 내가 어린이 집 보내고 나서 보니까 내가 딱 2년 동안 고립되어 있었어. 애들에게 빠져서 저녁에 외출 못하니까... (중략) 사회 생활을 못하잖아요. 신문으로는 보지만...

(2013. 8. 19. 참여자 6 면담)

현대사회는 철저한 정보 사회(information society)이다. 정보가 유력한 자원이 되고 정보에 의한 가치 생산을 중심으로 발전해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정보에 소외된 사람들은 철저하게 고립되거나 외면당하는데, 영유아기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도 무관하지 않다(변경애, 김은주, 2013). 자녀가 하나가 아닌 둘이라는 특성은 어머니로 하여금 정보의 단절을 초래하여 정서적인 고립에서 오는 현실과의 괴리감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3) 경제적 부담에 힘들어 하는 엄마

구비문학으로 전승되는 쌍둥이 설화에 의하면, 쌍둥이가 태어나면 형제 중에 기아선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둘 다 키우기 역부족인 현실에서 한 아이는 버리게 되는 것이다(김자현, 2007). 이렇듯 쌍둥이를 키우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경제적인 부담과 어려움을 동반한다. 터울이 있는 형제와 달리 쌍둥이인 경우 동시에 필요로 하는 육아용품들이 같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요구된다. 특히 쌍둥이는 임신초기부터 비용적인 부분이 일반임신과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는 KBS 뉴스에서(2013) “쌍둥이 출산 급증... 기쁨 두 배, 부담 서너 배”라는 방송을 보도하기도 했다. 아래의 내용은 임신초기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터뷰 내용이다.

시험관으로 아기를 가지다 보니 임신부터 출산하고 나서까지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2013. 7. 24. 참여자 6 면담)

한번은 수축이 잡힌다고 해서. (중략) 그때 입원비 진짜 많이 나왔어요. 300만원 넘게 나왔어요.

(2013. 7. 2. 참여자 5 면담)

임신 기간 중에 조산위험으로 입원을 세 번 정도 했는데 나중에 출산까지 하고 연말정산 해보니 병원비만 800만원 넘게 나왔더라고요. 임신은 실손 보험 적용이 안 되네요...

(2013. 1. 25. 참여자 3 면담)

일란성 증후군으로 처음에 애가 피를 덜 받아서 빈혈이 있어서 초반에 액체로 된 약을 먹었어요. (중략) 초반에 애들 낳고 혹시 모르니까 초음파하라고 하더라고요. 한사람 애들 50만원씩 백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태아보험 쌍둥이는 안되서 못 들었었죠.

(2013. 2. 4. 참여자 1 면담)

쌍둥이 임신은 비용적인 부분에서 초기부터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나 출산 후에도 지속되는 경제적인 문제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못해주는 자책감과 함께 스스로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양육 자신감을 저해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어머니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 및 자신감이 필요하고 이러한 양육자신감은 어머니 역할수행을 잘 하게 한다(이영은, 1991; Mecer, 1981)는 연구결과를 미뤄볼 때 쌍둥이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년째 휴직이죠... 지금 2년 넘어갔죠... 일단 어린이집 들어가는 게 목표긴 하나... (중략) (대기중이라) 올해 꼭 들어가야 하는데 걱정이예요. (2013. 2. 28. 참여자 1 면담)

아기 입장에서 뭐든 추가요금이 있다는 거... (중략) 돈이 되게 넉넉하면 선천성기형아 검사도 했을거고... 한명이라면 선택 접종도 했을거고... (중략) 성장앨범도 안했고, 제대혈도 아예 생각도 안했고, 못 해 준게 많아요. 그제... 미안하죠.

(2013. 8. 12. 참여자 5 면담)

2008년 12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모든 임신부에게 고운맘 카드 제도를 보급하였다. 그러나 쌍둥이에 대한 혜택은 2012년 7월에서야 추가 지원금이 도입되었는데, 외동아 50만원에 쌍생아는 70만원이다. 즉, 쌍생아를 두 명으로 적용한 100만원이 아니라 하나의 자녀에 추가하는 부가서비스 적 방식으로 20만원이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쌍둥이 어머니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출산 후에 추가지원금 제도가 도입되어 혜택의 수혜를 입지 못하였다. 그러나 쌍둥이를 위한 지원이 생긴 것에 대해 다행스러워 하면서도 부가서비스 적 지원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산부인과 전문의가 방송을 통해 "고위험군인 쌍둥이 부모는 병원비, 신생아 관리비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의료비 감면 혜택을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KBS, 2013)라고 보도하기도 한 점은 쌍둥이 지원에 대한 제도가 수정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정부에 지원받은 카드 고운맘 카드 저 할 때는 쌍둥이 혜택이 전혀 없었어요. 저도 초음파도 두 배 가까이 되고, 쌍둥이 보는 거랑 둘 보는 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금방 다 썼어요. (2012. 12. 27. 참여자 2 면담)

그게 되게 불만인거 같아요. 고운맘 카드 그게 2012년 7월에 70만원으로 올랐어요. 솔직히 쌍둥이가 One 플러스 One 물건도 아니고, 두 명이면 100만원을 줘야지 한 명당 50이면 두 명이면 100만원을 줘야지, 그나마 생각하면 좋은 하긴 한데 아쉬워요. (2013. 8. 12. 참여자 5 면담)

고운맘 카드 두 배로 줘야하는데 두 배로 안주잖아. (중략) 기저기 값도 두 배고... 그럼 맞는 예방 주사도 둘이면 깎아줘야지... (2013. 2. 4. 참여자 1 면담)

쌍둥이는 항상 추가 요금이 있다는 점에서 어머니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이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일수록 부모로서의 양육자신감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쌍둥이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약 70%가 어머니 혼자서 돌본다는 통계자료(김양숙, 2008)를 참고해 볼 때, 어머니는 주로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아버지 혼자의 수입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양육비용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권미경, 2011)한다는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이 과거에 직업이 있었으나 쌍둥이 출산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에 반해 자녀의 육아생활비는 커져 경제적인 부담을 증폭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쌍둥이 출산이 증가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쌍둥이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육아고충과 어려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P시에 거주하며 영아 쌍둥이를 양육하는 어머니 6명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두 차례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영아 쌍둥이 육아경험에서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가 겪는 어려움으로는 욕심도 사랑도 나누어야 하는 아이들, 환경의 제약을 받는 아이들, 태생자체가 약한 아이들로 나타났다. 둘째, 영아 쌍둥이 육아경험에서 어머니가 인식하는 본인의 어려움은 아플 시간도 없는 엄마, 몸도 마음도 쓸쓸한 엄마, 경제적 부담을 힘들어 하는 엄마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쌍둥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본 연구결과 여전히 쌍둥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극성스러운, 유별난, 다루기 힘든”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어머니들은 쌍둥이들과의 외출을 삼가하며 사회적 교류와의 단절 및 육아에 대한 소통을 나눌 대상의 부재로 어려움을 크게 느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쌍둥이들이 별나다는 이유로 유아교육기관에서 겪는 어려움이 나타났으나, 쌍둥이들이 증가하는 사회적인 변화를 고려해 볼 때 단지 거부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쌍둥이 홍보 동영상 및 긍정적인 시각의 변화가 요구되어진다. 본문에서 다루었던 태아보험 역시 쌍둥이에 대한 선입견과 부정적인 면을 인식해서 정착되어진 제도임을 미루어 볼 때, 사회 전반적인 면에서 쌍둥이에 대한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쌍둥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사회적 논의가 재고되어야 한다.

둘째, 쌍둥이 육아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인 정서적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첫 아이를 키우는 초보엄마의 경우 양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첫 아이가 쌍둥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과 어려움은 더 막중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 결과 대부분이 쌍둥이를 키우는 초보엄마로서 육아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만한 지원 센터나 도움처가 없음을 호소했다. 미국의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인 ‘트윈 서비스(Twin Services, Inc)’가 실제 운영되고 있어(Malmstrom & Poland, 2010), 쌍생아를 둔 부모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서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국가적 차원의 거시적 관계망인 쌍둥이 육아 지원센터 구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인공수정 등으로 인해 국내의 쌍둥이 수가 크게 늘었지만, 이들만을 위한 사회프로그램이나 문화시설 등이 부족(한국일보, 2010)한 터라 서로를 의지하며 즐거운 육아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외출이 용이하지 않은 쌍둥이 어머니가 바쁜 육아로 인해 사회적인 관계와 의사소통의 단절에서 오는 고립감을 극복하기 위해, 가정방문 양육코치와 다양한 육아특강이 고려되어야 한다. 실례로 다문화 가정의 방문 교육 지도사를 통해 자녀양육과 관련한 지식들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지원함에 따라 어머니의 역할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연구결과(조미영, 2011)를 미루어 볼 때 쌍둥이 및 다태아 자녀를 둔 어머니를 위한 정서적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쌍둥이 육아를 위한 금전적 지원을 위해 경제적 지원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쌍둥이는 동시에 두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부대비용이 두 배로 든다는 점에서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 뿐 아니라, 쌍둥이 임신은 초기부터 비용 부담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육아, 출산 등 복지 지원 등에서 외동아와 동일한 정책으로 적용되다가, 2012년 7월에 와서야 보건복지부의 고운맘 카드 한도를 쌍둥이에게 20만원 추가 지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이 가정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쌍둥이를 낳고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 지원은 크게 달라진 게 없으며, 오히려 쌍둥이는 두 자녀를 차례로 낳는 것보다 출산의료비 지원금이나 출산장려금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KBS, 2013). 이처럼 쌍둥이 육아 상황을 고려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방안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쌍둥이 영아 어머니 6명을 대상으로 임신경로를 따로 고려하지 않고 연구하였으나, 최근 사회변화에 따른 인공임신이 증가하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추후에는 자연임신, 인공임신 대상자를 나누어 각 특징을 심도 있게 다루어보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영아 쌍둥이 양육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으나 쌍둥이 육아의 다양한 연구가 없음을 고려해 성별, 연령, 출생순위에 따른 쌍둥이 자녀의 특징을 분석하고 자녀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및 외동아와 달리 아버지의 책임이 큰 쌍둥이 아버지에 초점을 둔 연구가 활성화 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 고은영(2010). 쌍둥이 영아의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 관련 사회적 지지, 양육스트레스와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미경(2011).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영향요인: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2), 19-41.
- 김광호, 조미진(2012). **오래된 미래 전통육아의 비밀**. 서울: 라이온북..
- 김양숙(2008). **두배로 힘들지만, 두배로 행복한 쌍둥이 임신에서 육아까지**. 서울: 이미지박스.
- 김자현(2007). 한국의 쌍둥이설화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동아일보(1999.11.30.) 쌍둥이 부모들 고생도 기쁨도 2배.

<http://news.donga.com/3/all/19991130/7489035/1> 출력일 2013년 10월 8일.

머니투데이(2012. 5. 8). 쌍둥이 출생 늘면서 쌍둥이 제품도 ‘불티’. 머니투데이.

<http://stylem.mt.co.kr/styview.php?no=2012050714275891362&type=1> 출력일 2013년 10월 8일.

문화라, 최호경(2012). **천하무적 쌍둥이 생생 육아**. 서울: 북하우스.

변경애, 김은주(2013). 어머니 학습공동체의 경험이 영유아기 자녀, 가정, 지역사회에 주는 의미 탐색.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3), 121-145.

보건복지부(2011). 질병관리본부,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움 개최(2012.02.16.). 서울: 보건복지부.

유효순(2012). **영아와 애착**.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윤수인(2007). 쌍둥이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태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영은(1991). 산욕초기 초산모의 간호목표달성방법 합의가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용숙 (2005). **실행연구방법**. 서울: 학지사.

임재택(2008). **생태유아교육개론**. 경기 : 양서원.

장영애, 이영자(2012).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및 부부갈등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3), 357-373.

조미영(2011).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영유아기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멘토링 과정 탐색.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조윤정(2007). 쌍둥이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유전과 환경의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윤선(2005). 산욕초기 초산모의 모성역할 적응과 산후우울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통계청(2012). 2012년 출생통계. 서울: 통계청.

한국일보(2010.8.4.). 인터넷 카페 ‘쌍둥이는 지금 뭘 할까’ 회원 가족의 즐거운 여름 캠프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society/201008/h2010080402311021950.htm&ver=v002> 출력일 2013년 9월 30일.

한국일보(2012.11.11.). 신생아는 감소하는데 이른둥이는 급증.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culture/201211/h2012111120563686330.htm&ver=v002> 출력일 2013년 10월 1일.

허윤미(2005).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유전과 환경의 영향: 쌍둥이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9(2), 91-102.

Bogdan, R. C., & Biklen, S. K. (1992).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 theory and methods(2nd ed.)*. Boston, MA: Allyn & Bacon.
- Goetz, J., & LeCompte, M.(1982). Problem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in ethnographic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2(1), 31-60.
- Groothuis, J. R., Altemier, W. A., Robarge, J. P., O'connor, S., Sandler, H., Vietze, P., & Lustig, J. V.(1982). Increased child abuse in families with twins. *Pediatrics*, 70(5), 769-773.
- Hopson, J., & Diamond, M.(2006). **매직트리**(최인수 옮김). 서울: 한울림.
- KBS(2013.03.12.). 쌍둥이 출산 급증...기쁨 두 배, 부담 서너 배.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625944&&source=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yt.top&where=news&ie=utf8&query=쌍둥이비용&x=0&y=0. 출력일 2013년 10월 1일.
- Mecer, R. T.(1981). A theoretical framework for studying the factors that impact on the maternal role. *Nursing Research*, 30(2), 73-77.
- Nelson, M. H. B., & Martin, C. A.(1985). Increased child abuse in twins. *Child Abuse & Neglect*, 9, 501-505.
- Malmstrom, P. M., & Poland, J.(2010). **쌍둥이 잘 기르기**(노순옥 옮김). 서울: 올림.
- Tanimura, M., Miatsui, I., & Kobayashi, N.(1990). Child Abuse in one of a pair of twins in Japan. *Lancet*, 336, 1298-1299.
- Sears, W., & Sears, M.(2011). **애착의 기술** (김세영 옮김). 서울: 푸른육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ild-rearing difficulties of mothers with twins in an effort to discuss how to lend assistance to these mothers, as the birth of twins has been on the rise.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six mothers who resided in the city of P and raised infant twins. They were interviewed twice in depth from December, 2012, to July, 2013.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s for the difficulties of their children perceived by the mothers, their children had to share everything, no matter if it was good or bad, and they were confronted with environmental constraints. In addition, they were fragile from the moment they were born. Second, concerning the self-perceived child-rearing difficulties of the mothers, they had no time to take care of themselves at all and felt lonely all the time. And they were under pressure due to financial burden. In order to help these mothers and their children to tide over their difficulties, there should be a change in the way people in general look at twins, and the establishment of emotional and financial support systems is required.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some information on how to offer full-fledged support for mothers with twins.

▶ *Key Words* : *twins, infant, childcare*

논 문 투 고	2013. 10. 15.
수정원고접수	2013. 12. 03.
최종게재결정	2013. 12. 20